

# 國內·國際短信

## ▲ 생고무, 黃酸필프 鎔解用, 古鐵等 關稅全額免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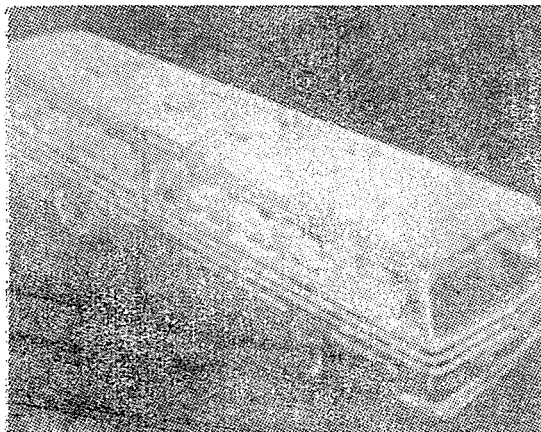
財務部는 政府의 物價安定策에 따라 지난 7月 31日 字 大統領 第4002 號로 생고무와 鎔解用古鐵 및 黃酸 필프 等 三個品目에 대한 輸入關稅들 全額免除하기로 하는 한편 輸入牛脂와 美松原木에 대하여서는 基本關稅率의 50%를 減免케 했다.

7月 31日 輸入申告分 부터 關稅의 減免 惠澤을 받게 될 이들 品目은 主務部長官의 免稅推薦分에 依해 適用받도록 되어있다.

## ▲ 現代서 버스生産

現代自動車는 코티나 「포트 20 M」 乘用車 및 「트럭」 製作에 이어 「버스」를 (포트 R~192)生産, 오는 10月 부터 輸出 하기 시작한다.

美國 「포드」社의 原資財에 依해 製作되는 이 「버스」는 포드의 「디젤·엔진」을 설치 出力, 백 30馬力으로 最高速力 1백 50 km를 달릴수 있는 고성능 「버스」로서 擘석 正원은 45인에서 54인 까지라 한다. 그런데 이 버스의 타이어 사이즈는 11.00—20이라 한다.



## ★ 인도네시아 第3 타이어工場 完工

인도네시아의 제 3 타이어工場인 Palembang 工場이 96% 完成되어 試運轉을 始作 할 段階에 있다고 한다. 同計劃은 인도네시아의 Ferrostanal AG 社와 Ernst

Komrowsky & Co.가 合作하여 체코 機械施設과 技術을 도입하여 매일 600개 그리고 年間 4,000톤의 타이어 및 튜우브 生産을 計劃하고 있다.

그러나 同 工場이 完工되기 爲해서는 RP 6億 9千萬元이 必要하여 淸 資金은 Bapindo (인도네시아 關發銀行)에서 公여하기로 되어 있으나 자금 公여가 여의치 않아 試運轉이 遲延되어 왔다고 한다.

## ★ 이란 輸出用 타이어는 Tractor tire로 轉換해야

(트럭 타이어는 이란내의 生産增加로 2年後에 輸入制限 될듯)

最近 알려진 바에 依하면 이란 經濟性과 英國 Dunlop 會社 間에는 이란에다 Dunlop 工場을 建設하기 爲한 基本的인 合意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새로운 타이어 工場은 테헤란으로부터 약 120km 떨어진 가즈빈시 근처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 하는데 이란의 投資額은 約 3億 6千萬리알 (US \$ 1=75.17 리알)이다. 그런데 同工場에서는 年間 9,000톤의 타이어를 生産하게 된다고 하며 적어도 5年 이내에 生産規模를 15,000 屯으로 增加시킬 計劃이라고 한다.

最近 이곳 市場에 인기리에 進出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타이어는 그 品質에 있어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2年間은 꾸준히 市場을 擴大시켜 갈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 自體의 生産量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2年後에는 繼續 供給이 어려울 것이라고 業者들은 展望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 市場에 繼續 타이어를 供給하기 爲하여는 이란의 市場變動을 민감하게 把握하여 이에 適應할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 ▲ 韓·튀니시아貿易協定체결키로 (輸出入品目타이어 等 40個選定)

政府는 正式外交關係가 樹立되어있는 「튀니시아」 共和國과의 交易擴大를 爲해 韓·튀貿易協定을 締結키로 合意——貿易協定財表에 수록할 타이어·튜우브 等 40個 輸出入品目を 選定했다.

7月 11日 外務部는 輸出餘力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實績이 매우 不振한 北「아메리카」의 輸出前進基地를 마련하기 爲해 「튀니시아」大使館을 통하여 交涉한 結果——韓·튀貿易協定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7月 1日 中央廳 第一 會議室에서 全文 9條로된 貿易 및 經濟協力에 關한 協定에 각각 署名했다.

### ▲ 79년까지 全國道를 完全鋪裝

李建設部長官은 6月 27日 國道完全鋪裝 10個年 計劃을 세우고 오는 79年 까지 全國 國道 8천 1백 km 中 鋪裝되어 있지 않은 6천 5백 20 km 를 工事費 6백 60 억원을 들여 완전히 鋪裝 할 것이다.

輸送難打開, 鐵道の 과중한 負擔을 덜고 격증하는 道路交通需要에 對備 輸送費의 減尠(km 當 10 원내의) 등을 目的으로한 이 計劃은 事業의 優先順位를 高速道路와 一般道路의 연결을 위한 進入路 交通量이 많은 幹線國道, 産業據點間 連結國道에 日間交通量을 2백台 이상의 國道를 기준으로 年次的으로 鋪裝한다.

### ★ 싱가포르 生고무값 올들어 最高記錄

「말레이시아」의 人種暴動再發이 고무 生産에 큰 影響을 끼치고 있는데 대하여 商人들은 出荷를 꺼리고 있어 「싱가포르」의 生고무값은 「파운드」當 7圓 5分으로 올해들어 最高價格을 記錄하고 있다.

### ★ 日本 生고무값 續騰

最近 日本의 生고무값이 「말레이시아」의 政情不安, 「인도네시아」의 減産 등을 原因으로 계속 昂騰; kg 當 2백 18圓線에 있으며 1年半 전에 비해 kg 當 약 1백 원이 올랐다.

### ▲ 生고무 關稅免除해도 價格上昇

(海外時勢上昇 影響받아)

政府에서 「타이어」 고무靴類 등 二次產品 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해 輸入關稅까지 免除조치했던 生고무가 요즘 市中에서는 오히려 關稅免除 以前보다 1만원 높은 噸當 27만원 線에서 去來(都賣)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 같은 現狀에 대해 關係業界에서는 生고무의 原產地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生産量이 크게 줄어들어 美 國 및 中共 等의 輸入需要가 昨年보다 倍나 늘어났기 때문에 「오피」는 지난 7月中旬까지 만해도 Lb當 (RSS I) 24센트 이던것이 27센트 까지 뛰어들어 關稅를 免除받는다 해도 輸入コスト 上昇으로 부득이 값을 올려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 美 G·M·C 韓國進出

(韓進과 提携說 業界關心커)

美 「포드」에 이어 自動車 대 「Maker」로 널리 알려진 「G·M·C」에서 韓國進出을 積極 推進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크게 注目을 끌고있다.

日 自動車業界에 依하면 「G·M·C」는 韓國의 韓進商社와 提携를 갖게 될 것으로 約 2年前後 부터 韓國進出을 꾀해온 것으로 傳한다 萬一 「G·M·C」가 韓國을 進出하게 된다면 日 「도요다」와 提携한 新進, 美國 「포드」의 現代 및 이탈리아 「피아트」의 亞細亞와 더불어 계의 大 Maker 가 熾烈한 競爭을 벌일 것으로 豫想되며 業界의 關心이 대단하다.

특히 日 自動車業界에서는 「G·M·C」의 韓國進出로 이미 韓國에 進出하고 있는 「도요다」에 미치는 影響은 勿論 「포드」 및 「G·M·C」의 앞으로의 計劃에 따라 日市場을 包含한 東南 아세아 市場에 있어서 日 自動車 Maker에 對한 打撃이 클 것으로 憂慮, 韓國政府에서 어떠한 措置를 취할것인지에 대해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다한다. 이러한 日業界의 消息에 對한 韓國政府關係當局은 「G·M·C」의 韓國進出 問題는 事實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韓進측도 그러한 事實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